

新年辭

다사다난했던 계사년(癸巳年)의 어둠을 뚫고, 갑오년(甲午年)의 첫 태양이 솟아올랐다. 2014년, '말띠 해'의 힘찬 도약을 열어젖히는 태양은 더 새롭고, 더 크고, 더 찬란하다.

하지만 새해를 맞는 국민들의 마음은 편치 못하다. 먼저, 우리에게 가장 민감하게 다가선 북한의 정세 변화다. 2인자로 통하던 장성택이 처형되면서 남북 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김정은은 최근 군부대를 시찰하는 자리에서 "전쟁은 사전에 광고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내부 변화와 도발 징후 등을 예의 주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미·중·일·러 등과 긴밀히 협조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굳건히 하고, 남북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에서 비롯된 정치권과 이념·계층 간의 갈등, 철도노조 파업에서 보여준 강경대처 등 국론분열 양상은 또 다른 위기가 아닐 수 없다. 대선 개입사건이 1년 내내 정국을 달구고 있지만 국회에서 다루고 있는 국정원 개혁법안으로 이를 봉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구랍 30일 여야 정치권과 노조가 나서 가까스로 철화에 합의한 철도노조파업도 국민들에게 고통과 불안만을 안겼을 뿐이다. 민영화나,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노조와 정부의 강경 일변도는 향후 '노-정'의 관계설정에서 있어서도 우려가 크다. 지난 1년 끊임이 없었던 갈등과 대립은 박근혜 정부의 첫 정책 화두인 '대통합', '100% 대한민국'과는 거리가 멀다.

이를 두고 박 대통령의 불통과 원칙이 사태를 키

고 있다. 기업은 기업대로 국내외의 불확실성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9%로 잡고 있지만 대외경제 불안 속에 이마저 여의치 않다. 정부가 확실한 비전을 보여줘야 기업과 국민 개개인이 희망을 갖고 의욕적으로 다시 뛸 수 있는 것이다.

지역적으로 호남사람들은 지난 1년 답답하고, 착잡한 심경뿐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인사는 물론 예산에 있어서도 호남 차별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다.

지역 역량 결집해 새롭게 도약하자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호남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 "모든 지역과 성별, 세대의 사람들을 고무 등용해 100%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자 소망이다"고 한 약속이 과연 지켜지고 있는지의 문이 든다. 이대로 간다면 향후 4년 호남은 암담할 따름이다.

그렇다고 펄펄과 냉소로 일관하며,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는 일이다. 올 지방선거에서 정치지형 변화에 염두를 둔 그야말로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한다. 또한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갈무리를 위해 지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

우선, 안철수 신당이 구체화됨에 따라 민주당 중심이었던 지역 정치구도는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광주·전남에서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안철수 신당 지지도가 그 뒷받침 민주당보다 3배 이상 앞선다는 것은 이제 엄연한 현실이다. 그제 반사이익이라 할 지라도 대선 이후 개혁과 변화없이 파벌싸움과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는 민주당의 현주소로선 달리 도리가 없다.

하지만 안 의원이 유념해야 할 것은 호남에서 지지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호남에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또 다른 지역당으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전국 정당화로 가야지 민주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빼내기 식 '급조정당'이라면 구태 정치와 다를 바 없고, 막상 민주당과 신당의 '공동참패'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안 의원이 새 정치와 신당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 이유다.

한편으로 오는 6월4일에는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시장과 도지사, 일선 시·군·구 단체장 및 지방의원을 뽑는 이번 선거는 지역의 내실과 역량 결집을 통해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 이정표가 아닐 수 없다. 화연과 지연, 불법선거를 통한 유권자의 잘못된 선택은 결국 지방을 망치게 된다는 지난 20년의 지방자치 경험을 새겨야 한다.

지역의 성장동력이 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지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 호남고속철도(KTX 호남선) 서울~광주 구간이 오는 12월 완공되고, 10여 년을 끌어온 국립 아시아문화전당도 10월 중장한 모습을 드러낸다. 내년에 개막하는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의 철저한 준비와 지난해 첫 삼을 뜬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도 우리 모두의 몫이다.

올해로 창사 62주년을 맞는 광주일보는 지역의 정당한 목소리를 높이고, 경쟁력을 키우는데 앞장설 것이다. 낙후된 광주·전남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대변하는데 소홀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다.

새해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만은 잃지 않아야 한다. 서로 돕고, 나누고 소통하면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한해로 만들자. 그 때마다 나라를 위기에 서 구해냈던 호남인의 자력을 발휘하자. 우리는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

은펜클럽



송민석 국립대학법인 UNIST 위촉임학사정관

순광보다는 역광이다

들뿐이다. 한 발짝이라도 중앙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으로 여긴 탓이다. 사진은 해를 등지고 찍어야 한다고 귀가 닳도록 들어왔기에 역광을 의식적으로 피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진반에 와서 내 상식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잘 찍는 고수들은 순광보다는 오히려 역광이나 측광에서 멋진 빛의 예술을 만나고 있었다.

사진은 빛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서 정면보다는 측면으로 비쳐서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터득해 가고 있는 중이다. 가을 단풍은 역광이나 측광에서 입체감이 살아남을 체험을 통해 깨닫게 되면서부터다. 이렇듯 가끔씩 순광을 피하고 빛의 방향을 달리하면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배우려고 했다.

대인관계도 마찬가지로 아닌가 싶다. 20여 년 전 교직에 있을 때 말쑥한 부리던 녀석 서너 명이 며칠 전 찾아왔다. 하나같이 재학 중에 애를 먹던 친구들로 지금은 사업으로 성공한 40대 중반의 제자들이었다. 우송한 대접과 함께 기념품까지 전해주는 걸 받아놓고 오는 길에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던 기억

이 새롭다. 지난날 교단에서 성적에 치우쳐 학생들을 평가하지 않았나 하는 자책감 때문이었다. 학창시절의 담임을 찾는 학생들을 보면 명문대학에 진학하거나 재학 당시 모범생들이 찾아온 기억은 별로 없다.

지난날 대인관계 역시 공식적인 대면 중심으로 상대방을 재단해 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내면보다는 출신학교나 경력 등 겉모습만으로 평가 해온 것을 생각하면 부끄러움이 앞선다.

대학 입학사정관으로 서류평가와 면접에 5년째 참여하고 있으나 해가 갈수록 제한된 짧은 시간에 학생을 제대로 평가하기란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성적이나 자기 소개서를 먼저 보고 신입감에 사로잡혀 수험생을 평가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래서 간혹 대기업에서 신입사원 채용 시 단순 면접만으로 부족하여 합숙면접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이라라.

직장에서든 업무적인 만남보다는 퇴근 후 커피숍이나 술자리에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발견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던가. 30여 년

전 직장마다 두 명씩 조를 이루어 숙직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 직원들과 돌아가면서 숙직을 하다 보면 반년쯤 지나 6~70명 직원 모두의 성격과악이 되어 가깝게 지냈던 것도 이런 측면평가의 덕이 아니었을까. 밤잠을 자지 않고 규정대로 순찰을 도는 동료, 바둑을 좋아하던 동료, 심하게 코를 골던 동료들을 생각하면 그 옛날 그 시절이 그리기도 하다.

이렇듯 세상만사는 정면에서만 보지 않고, 한 발짝 비껴서 각도를 달리하면 달리 보인다는 사실을 퇴임 후에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빛의 조화를 고려하여 훌륭한 사진 작품을 골라내듯 남은 남들은 공식적인 접촉이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해본다. 갑오년 새해에는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상대방의 내면의 아름다움까지도 볼 수 있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갖고 싶다.

은펜클럽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성지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심는 코너입니다.

늘어나는 여성 금연...클리닉 프로그램 활성화해야

담배는 남자를 불분하고 모두에게 해롭다. 그런데 특히 여성의 흡연은 남성보다 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이유는 생리학적으로, 특히 아기를 임신하는 여성의 특성상 흡연은 건강에 치명적으로 해악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성의 흡연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하니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여성은 남성보다 폐 면적이 10%가량 작다. 이 때문에 같은 양의 담배를 피우더라도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흡연 여성의 폐암 사망률은 비 흡연자에 비해 12배 높다고 한다.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서서 여성의 금연 상담이나 클리닉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 특히 청소년 여성 금연클리닉의 경우 철저한 비밀 보장 이 이뤄져야 한다. 앞으로 여성 누구나 부담 없이 쉽게 이용하는 금연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사회지·광주시 남구 노대동

육 안 좋은 이유가 하나 더 있다. 아무리 여권 신장을 외쳐대고 남녀 평등을 말한다고 해도 여전히 여성의 흡연에 대해 관대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은 남들 몰래 숨어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특징 때문에 서둘러서 빨리 피우려 하다 보니 몰아서 피는 경향이 있고 이런 흡연 습관이 질병의 발생확률을 더욱 높인다는 것이다. 여성은 니코틴 대사도 빨리 니코틴이 몸속에서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흡연욕구가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만큼 여성은 한번 담배를 배우면 남성보다 담배 끊기가 더 힘들다는 것이다.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서서 여성의 금연 상담이나 클리닉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 특히 청소년 여성 금연클리닉의 경우 철저한 비밀 보장 이 이뤄져야 한다. 앞으로 여성 누구나 부담 없이 쉽게 이용하는 금연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사회지·광주시 남구 노대동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기고



한국환 봉산초 교사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아프리카에선 찾아보기 드문 싱싱하고 달콤한 딸기가 가득 찬 바구니를 멀리 나무 옆에 두고서, 누구든지 가장 먼저 바구니까지 뛰어간 한 아이에게 과일을 모두 주겠노라 약속했다고 한다. 딸이 통역되어 아이들에게 전달되자마자 인류학자의 예상과는 달리, 어느 한 아이라도 손살같이 뛰어가지 않고 마치 미리 자신들끼리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손을 잡더니 그대로 함께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저쪽 바구니에 이르자 모두 함께 뿔 뿔러앉아 한 입 가득 과일을 베어 물고 서로 마주보고 씹고 웃으며 재미나게 과일을 나누어 먹었다고 한다.

그러자 인류학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아이들에게 "누구든지 제일 먼저 일등으로 간 아이에게 바구니 과일을 모두 주려 했는데 왜 손을 잡고 같이 달렸어?" 하고 묻자, 그 아이들의 입에선 'UBUNTU'라는 단어가 모두 합창하듯 쏟아져 나왔다. 그러면서 한 아이가 이런 말을 덧붙였다.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가 있죠?" 'UBUNTU'는 아프리카말로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이라고 한다.

미혼모들이 아이 키울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필요

출산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해 나라의 적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미혼모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선진국인 스웨덴의 미혼모들은 육아보조비와 임신 수당, 키우 보조비 등을 받는다 고 한다. 아이를 키우는 미혼부도 흔하고 주거보조비도 받는다.

남자가 아이를 키우지 않을 경우에는 대신 양육비를 여성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는 결혼을 한 성인이 아이를 낳아 기르다가 이혼할 경우 남자가 여성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우리나라와 똑같은 제도이다.

다만 확실한 차이는 선진국의 경우 미혼

모의 아빠에게도 이런 의무를 원칙적으로 부과해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가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써 미혼모들도 어렵지 않게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뒤집어 생각해 보면 당장 미혼모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걸 아는 산모가 미리 낙태수술을 하는 것을 막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나라도 미혼모들이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여러 경제적 지원 제도가 마련됐으면 한다. ▲김진영·순천시 조례동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치적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으며, 또한 스웨덴은 낙태가 허용되지만 출생아 대비 낙태율은 16%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다. 이것은 낙태가 불법인 우리나라의 5분의 1수준이라고 하니 제도 하나가 얼마나 큰 차이를 드러내는지 알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미혼모들이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여러 경제적 지원 제도가 마련됐으면 한다. ▲김진영·순천시 조례동

無 等 鼓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접어들던 1945년 5월,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한 '맨해튼 프로젝트'의 책임자 오펜하이머를 비롯해 페르미와 로렌스, 콤포턴 등 4명의 과학자가 일본에 핵폭탄을 떨어뜨릴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모였다.

오펜하이머는 이 자리에서 "핵폭탄은 죽음의 무기지만, 전쟁을 끝내고 인류의 평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고, 네 사람은 만장일치로 일본의 인구밀집 지역을 핵폭탄을 투하할 것을 결정했다.

1945년 8월 6일 월요일 문명의 그날, B-29폭격기가 원자폭탄 '리틀 보이(Little boy)'를 히로시마에, 그리고 3일 후에는 '팻 맨(Fat man)'을 나가사키에 떨어뜨렸다. 두 발의 폭탄은 21만여 명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갔고, 일본은 6일 후 무조건 항복했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성공했지만, 오펜하이머는 고뇌에 빠졌다. 폭발의 참혹한 결과를 알게 된 그는 뒤늦게 "나는 세계의 파괴자, 죽음의 신이 되었다"고 탄식했다. 또, 트루먼 대통령에게는 "내 손에 만다 함께 멀리 가는 것이 더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가요?"

역시 "내 인생에 있어 한 가지 큰 실수를 했다"고 자책했다.

'AK-47' 소총을 개발해 '소총의 아버지'로 불리는 미하일 칼리슈니코프가 지난해 말 세상을 떠났다. 1947년 실용화된 AK-47은 화력이 강하지 않고, 명중률도 낮았다. 하지만 사용법이 간단하고 고장이 적으며 생산비가 적게 들어 인기가 끌었다.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점 때문에 AK-47은 마피어나 무장조직, 테러범이 선호하는 '저주받은 무기'가 되어버렸다. 칼리슈니코프는 훗날 "조국을 지키려 발명했던 내 총이 테러리스트들 손에 들려있는 모습을 TV에서 볼 때면 '누구를 위해 무엇을 만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며 회한을 토로하곤 했다.

북한과 테러범들이 핵폭탄과 AK-47을 흔들여 보이며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오펜하이머나 칼리슈니코프가 뒤늦은 자책을 했지만, 모든 무기는 '양날의 파자자, 죽음의 신이 되었다'고 탄식했다. 또, 트루먼 대통령에게는 "내 손에 만다 함께 멀리 가는 것이 더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가요?"

역시 핵무기 개발을 독려했던 아인슈타인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汶松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奇賢鎔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일내선)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경 제 부 2200-663	경영지원국	2200-515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매체부	2200-661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디 지 인 실	2200-536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서울 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프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